

여고생의 동그라미중심 부모-자녀 그림(PSCD) 반응특성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emale high-School Students' Reactive Characteristics to PSCD and Their Parent-Child Communication

김갑숙* · 전영숙
영남대학교

Kim, Gab Sook · Jeon, Young Sook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ir reactive characteristics to the PSCD(Parent-Self-Centered-Drawing) test of the Female high-School Students. The study subjects are 209 Female high-School Students, and research tools are PSCD test and a measure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 paired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s post-hoc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perceived positively communication toward mother more than communication toward father. Second, as for communication toward father according to the subjects' reaction to the father figure, female students show difference in omission of facial parts, omission of body parts, balance of body parts, facial expression and positive and negative symbols. Third, as for communication toward mother according to the subjects' reaction to the mother figure, female students show difference in omission of facial parts, omission of body parts, balance of body parts, facial expression and negative symbols. Forth, according to the female students' reaction to the self figure, they show different levels of communication toward father and self in regard of facial expression and distance between the figures. On the other hand, they show different levels of communication toward mother with respect to omission of facial parts, omission of body parts, balance of body parts, facial expression and distance between the figures.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PSCD is a useful tool for measuring the level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Key Words : PSCD(Parent-Self-Centered-Draw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자녀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부모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찍이 프로이트나 설리반, 에릭슨 등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한 인간의 초기경험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대상관계이론에서도 자녀의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가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은 출생 후부터가 아니라 태내 혹은 그 이전인 수정 당시부터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에게 있어 부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것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건강한 성격형성과 유지는 물론, 사회적·도덕적 가치와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강문희, 장연집, 정정옥, 1999). 즉 부모-자녀 사이의 원만한 관계가 지장을 받게 되면 자녀에게 부적응 행동이 유발되어 심리적 안정, 정신 건강 등에 지장을 가져오고 사회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Hurlock, 1972).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함께 그들의 관심이

* Corresponding author: Kim, Gab-Sook
Tel: 053) 655-2152
E-mail: pinakim@ynu.ac.kr

부모 이외의 대상으로 옮겨가고, 부모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이유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부모-자녀 간의 대화가 어렵고,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심하게 된다(Olson, Sprenkle, & Russel, 1983). 따라서 이 시기의 자녀는 물론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를 위해서 수용적인 분위기에서의 상호작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모-자녀의 관계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금숙, 1999). Campbell은 의사소통은 어떤 문제에 대한 오해나 갈등을 해소시켜 주고 가족구성원 특히, 부모-자녀간의 단결을 도모해 준다고 하였다(윤혜경, 1990 재인용). Deacon과 Firebaugh(1981)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인간상호 간의 접촉을 지속시켜 사회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고 미래지향적 관리과정을 유도하고, 성인 간에서는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적 접근의 가족치료자들은 가족의 왜곡된 인간관계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양식을 반영하여 올바른 인간관계 정립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의 의사소통 장애와 자녀의 부적응 행동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마정건, 1988; 박성수, 1979). Satir(1972)는 의사소통이 간접적이며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가정에서 문제를 드러내게 되며, 건강한 가족은 의사소통이 직접적이며 명백하다고 했다. 즉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솔직해서, 가족구성원은 즐거움과 성취 뿐 아니라 실망이나 슬픔, 상처, 분노, 비판 등 어떤 것에 관해서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였다(Nichols & Schwartz, 1995). 그러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에게서는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감, 좌절감,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하게 된다(송정아, 최규련, 1997)는 것이다.

Barnes와 Olsen(1982)은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녀의 질문을 많이 허용하고, 자녀들의 주장을 격려하며, 자율적인 사고를 조장하는 부모의 대화유형이 바람직한 자녀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청소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나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정명희, 1987)고 하였다. 또 가정이 화목할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이며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많다. 부모와 자녀간의 원활한 의

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문제 이해를 돕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갈등을 심화시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적응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김주분, 1994; 박은주, 1994). 김진경(2002)은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사회적 기술 증진에 장애가 되어 청소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낮은 또래수용, 비행,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민하영(1991)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아버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고, 최선남(1990)의 연구에서 가정분위기가 화목하고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한 것을 보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단시일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의사소통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도 쉽지 않다. 부모-자녀 관계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가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Parents-Self-Centered-Drawings: PSCD)의 반응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여고생의 부모 의사소통과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질문지에 의한 방법은 부모-자녀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언어에 의한 방법이므로, 언어의 의식화 과정에서 이성의 검열을 받게 되며(Brown, 1976),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Paulhus, 1981, 정현희, 2002 재인용), 관계의 심층까지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비언어적 기법에 의한 그림은 방어가 적고 자녀가 의식하지 못했던 부모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을 비교적 쉽게 표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PSCD는 부모-자녀관계를 진단하는 투사검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PSCD는 원의 중심에 부모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각 인물상 주위에 그 인물에서 떠오르는 상정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상징으로부터 연상되는 상징중심의 탐색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상징중심 탐색은 무의식을 자극하고 긍정적 에너지 또는 부정적 에너지를 노출하게 해준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한다(김동연, 정현희, 1997).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렵고(Perry & Bussey, 1984),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후에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데(Axline, 1976), PSCD의 표현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며, 자신과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분노, 적대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화의 기능을 한다. 또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감추어진 감정, 적개심, 고통스러운 경험 등도 정신적인 손상 없이 드러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김동연, 정현희, 2002). 이것은 부모-자녀관계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관계되는 생각과 감정,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표현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관찰하기 어려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까지 알아 볼 수 있는 것이다(정현희, 1994).

그러나 그림에 의한 진단 검사인 경우도 지금까지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주로 동적 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 KFD)를 사용해왔다. KFD는 자녀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도구임이 틀림없으나, 부모에 대한 지각이라기보다 가족 모두에 대한 지각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PSCD는 동그라미 안에 부모와 자신만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부모-자녀 관계만을 국한해서 그 역동이나 구조를 조사하고자 할 때 KFD보다 효과적이며, 각 인물에 대한 상징을 표현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징을 통하여 부모에 대한 감정이나 사고를 명료화 할 수 있다. 또 처음 접근할 때 가운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 빈 공간일 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시작할 수 있고, 방법이 간접적이어서 검사를 받는다는 부담감을 줄여주고, 가족을 그리는데 대한 저항감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점에 있어서도 KFD는 기준이 많고 매우 복잡하여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비하여 PSCD는 채점기준이 간단하여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KFD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PSCD에 대한 연구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정현희 등의 연구(정현희, 1992, 1994, 1996a, 1997, 1999; 정현희, 장혜경, 1995a, 1995b; 정현희, 김영자, 1996b)를 제외하면 중학생의 부모-자녀 친밀도와와의 관계를 연구한 김지연(2006)의 연구 정도이고, 대상에 있어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쪽 부모 모두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보다 한쪽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인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PSCD 반응특성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밝혀 PSCD 그림이 부모-자녀관계를 진단하는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첫째, 여고생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PSCD 상의 아버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아버지와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PSCD 상의 어머니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PSCD 상의 자기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고생으로 하였다. 일차적으로 2006년 3월 15일 대구광역시 소재하는 고등학교 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6년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한 여자고등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동그라미중심 부모-자녀 그림 검사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질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실시는 수업시간을 통하여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실시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하였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전체 315부를 배부하여 그 중 31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부·모 중 한사람이 없거나, 질문지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 질문지와 그림 중 하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시키고 209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은 Burns(1990)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되었다. 먼저 직경 20cm의 동그라미가 그려진 A4 용지를 배부한 후 「원의 중심에 부모와 자신을 그리십시오. 막대기나 만화 같은 그림이 아닌 전신상을 그려주십시오. 그 다음 부모와 자신에 대해 연상되는 상징을 원의 주위나 인물상의 주위에 그려주십시오 」라고 지시한다.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으며 질문이 제기될 때 “자유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9)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부만족도	아주 만족	38	18.4	형제수	1명	21	10.0
	만족	71	34.3		2명	122	58.4
	보통	60	28.9		3명	52	24.9
	불만족	24	11.6		4명이상	14	6.7
	아주 불만족	14	6.8				
모만족도	아주 만족	62	29.7	가정분위기 만족도	아주 만족	36	17.2
	만족	97	46.4		만족	83	39.7
	보통	38	18.2		보통	58	27.8
	불만족	9	4.3		불만족	18	8.6
	아주 불만족	3	1.4		아주 불만족	14	6.7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결측치에 의한 것임

대로 그리십시오"라고 대답하여 그림에 대한 암시를 주지 않았다.

평가 기준은 정현희(1994), 김지연(2006)의 연구와 인물화의 채점기준을 참고로 하여 13개 평가영역을 구성하였고, 그 세부항목은 표 2와 같다.

평가영역 중 인물상의 방향은 채점 결과 대다수가 정면으로 표현하였고, 인물상을 생략한 경우가 극히 적어 인물상의 방향과 인물생략은 평가영역에서 제외시켰다. 채점기준은 신체부위 생략과 전체 상징수, 긍정 상징수, 부정 상징수는 개수로 채점한 후 신체부위 생략은 생략 없음, 1-2개 생략, 3개 이상 생략으로, 상징수는 상징 없음, 1개, 2-3개, 4개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얼굴표현은 얼굴내부 전체를 생략한 경우, 이목구비 중 일부가 생략된 경우, 이목구비를 다 그린 경우의 세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신체의 크기는 동그라미 원의 1/2 이하의 크기는

작다, 2/3 미만은 보통, 2/3 이상으로 그렸을 경우는 크다고 채점하였다. 신체균형은 머리 크기를 중심으로 4등신 이하일 경우 불균형으로, 6등신까지는 중간, 그 이상은 균형으로 채점하였고, 얼굴표정은 울고 있거나 화를 내고 있는 경우는 어두운 표정으로, 표정이 없을 경우 무표정으로, 웃거나 미소를 띠고 있을 경우는 우호적으로 채점하였다. 인물상의 거리는 인물상이 중첩되고 어깨가 맞닿을 때는 밀착, 인물상이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일 때는 적당거리로, 그 이상은 분리로 채점하였다.

그림 채점은 각 항목에 대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미술치료를 전공한 대학원생 1명이 함께 수행하였다. 전체 표집 가운데 50명의 그림을 표집하여 2명의 채점자가 각각 채점한 결과를 상관계수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채점자간 일치도는 $r=.91$ 로

<표 2> 동그라미 중심 부모 자녀 그림의 평가 기준

영역	구분	아버지상	어머니상	자기상
신체부위 생략	개수(* 참고)			
	* 눈, 코, 입, 몸, 팔, 다리, 손, 발 중 생략된 개수			
얼굴 표현	내부생략/부분생략/이목구비 다 그림			
신체 크기	작다(1/2이하)/보통(2/3미만)/크다(2/3이상)			
신체 균형	불균형/중간/균형			
얼굴 표정	어두운/무표정/우호적			
전체 상징수	개수			
긍정 상징수	개수			
부정 상징수	개수			
인물상 위치	왼쪽/오른쪽/중앙			
인물상 방향	뒷/옆/정면			
인물간 거리	밀착/적당간격/분리			
그림 순서	첫째/두번째/세번째			
인물상 생략	생략/그림			

나타났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가족 내의 의사소통과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하여 Olson과 Barnes(1982)가 개발한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도구를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2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며 개방형 10문항, 문제형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역으로 채점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이며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부와의 의사소통은 cronbach $\alpha = .940$, 모와의 의사소통은 cronbach $\alpha = .929$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고, 그림채점에 있어 채점자간 일치도는 상관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여고생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하였으며,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 반응 특성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test를 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 반응 특성에

따라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은 아버지상, 어머니상, 자기상으로 분류하고, 그림의 평가영역은 얼굴 표현, 신체생략, 신체균형, 인물크기, 얼굴표정, 전체 상징 수, 긍정 상징수, 부정 상징수, 인물상의 위치, 인물상간의 거리, 인물상의 순서의 11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상은 부 의사소통과, 어머니상은 모 의사소통 과, 자기상은 부, 모 의사소통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부모의사소통의 차이

여고생들의 부모의사소통의 차이는 표 3에서와 같이 부의사소통과 모의사소통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7.183, p<.001$), 모와의 의사소통 점수가 부와의 의사소 통 점수보다 높았다. 즉 여고생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와 개방적이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버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부 의사소통의 차이

아버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부 의사소통의 차이를 알 아본 결과(표 4) 아버지상의 얼굴표현, 신체부위생략 수, 신체균형, 얼굴표정, 긍정 상징수, 부정 상징 수에 따라 부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상의 얼굴표현에 따라서 부 의사소통은 $p<.01$ 수 준에서 차이가 있었다($F=5.309$). 사후검증 결과 얼굴내부 를 모두 생략한 집단과 타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 얼굴표 현을 생략한 경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 생략 수에 따라 부 의사소통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918$). 사후검증결과 신체생략이 없는 집단($M=68.71$)과 3개 이상 생략한 집단($M=58.41$)간 에 차이를 보여 신체생략이 없을 경우 아버지와의 의사소 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균형에 따라 부 의사소통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080$), 불균형집단($M=61.49$)과 중간집

<표 3> 부의사소통과 모의사소통의 차이

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p
부 의사소통	209	66.69	15.58	7.183	.000
모 의사소통	209	73.25	13.56		

단(M=69.01)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상의 신체를 불균형하게 그린 집단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얼굴표정에 따라 부 의사소통은 $p<.0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F=18.238$), 사후검증 결과 표정이 어두운 집단(M=49.0), 무표정한 집단(M=61.0), 우호적인 집단(M=71.26)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굴표정을 우호적으로 그릴수록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징수에 따라서는 전체 상징수는 차이가 없었으며, 긍정 상징에 있어서 $p<.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F=5.109$). 사후검증결과 긍정 상징이 없는 집단(M=65.46)과 2-3개의 긍정 상징을 그린 집단(M=83.14)간에 차이를 보여 긍정 상징수가 많을 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상징수에서는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F=4.208$). 사후검증 결과 집단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 상징을 그리지 않은 집단이 부와의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다.

3. PSCD의 어머니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모 의사소통의 차이

어머니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표 5) 어머니상의 얼굴표현, 신체부위 생략 수, 신체균형, 얼굴표정, 부정 상징수에 따라 모와의 의사소통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상의 얼굴표현에 따라 모 의사소통은 $p<.05$ 수준

<표 4> PSCD의 아버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부 의사소통의 차이

영역	구분	N	M	SD	F(t)
얼굴표현	내부생략	9	50.66 ^a	11.75	5.309**
	눈, 코, 입 부분생략	55	66.27 ^b	15.43	
	이목구비 모두그림	142	67.82 ^b	15.50	
신체부위 생략수	생략없음	110	68.71 ^a	15.82	4.918**
	1-2개 생략	72	66.72	14.35	
	3개 이상 생략	27	58.41 ^b	15.54	
신체크기	작다(1/2)	90	63.96	14.17	2.736
	보통(2/3미만)	73	69.59	16.24	
	크다(2/3이상)	46	67.43	16.54	
신체균형	불균형	47	61.49 ^a	16.19	4.080*
	중간	118	69.01 ^b	15.48	
	균형	44	66.04	14.04	
얼굴표정	어두운	9	49.00 ^a	16.54	18.238***
	무표정	59	61.10 ^b	13.87	
	우호적	132	71.26 ^c	14.19	
전체 상징수	0개	25	65.32	14.86	.520
	1개	91	65.76	15.07	
	2-3개	49	66.96	14.41	
	4개 이상	44	69.09	18.30	
긍정 상징수	0개	168	65.46 ^a	15.19	5.109**
	1개	34	69.35	14.54	
	2-3개	7	83.14 ^b	14.09	
부정 상징수	0개	140	69.08	14.20	4.208*
	1개	44	63.16	16.90	
	2-3개	35	62.26	17.32	
인물상 위치	왼쪽	151	67.32	15.89	1.064
	오른쪽	25	62.44	15.55	
	중앙	33	67.03	14.02	
그린 순서	첫 번째	157	67.66	15.90	1.256
	두 번째	28	64.28	14.29	
	세 번째	24	66.69	14.59	

* $p<.05$, ** $p<.01$, *** $p<.001$,

a, b, c : Scheffé-test 결과임. 서로 다른 문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5> PSCD의 어머니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모 의사소통의 차이

영역	구분	N	M	SD	F(t)
얼굴표현	내부생략	9	61.67 ^a	18.36	3.752*
	눈, 코, 입 부분생략	63	72.76	11.94	
	이목구비 다그림	136	74.22 ^b	13.71	
신체부위 생략수	생략없음	106	74.56 ^a	13.45	4.081*
	1-2개 생략	76	73.84	13.03	
	3개이상 생략	27	66.44 ^b	13.94	
신체크기	작다(1/2)	91	71.69	12.81	2.912
	보통(2/3미만)	81	76.05	14.44	
	크다(2/3이상)	37	70.95	12.63	
신체균형	불균형	48	70.23	13.77	4.783**
	중간	119	75.72 ^a	12.76	
	균형	42	69.69 ^b	14.34	
얼굴표정	어두운	5	63.80	8.35	4.368*
	무표정	45	69.98	13.13	
	우호적	150	75.21	12.93	
전체 상징수	0개	27	76.66	10.82	1.087
	1개	105	72.00	13.35	
	2-3개	41	72.68	13.89	
	4개이상	36	74.97	15.45	
긍정 상징수	0개	125	72.71	13.07	.569
	1개	65	73.40	15.09	
	2-3개	19	76.26	11.51	
부정 상징수	0개	177	74.70 ^a	12.29	7.099**
	1개	23	64.61 ^b	14.70	
	2-3개	9	66.78	23.63	
인물상 위치	왼쪽	35	73.06	13.26	.189
	오른쪽	85	73.93	14.66	
	중앙	89	72.67	12.68	
그린 순서	첫 번째	34	73.82	12.21	.173
	두 번째	143	73.39	13.24	
	세 번째	32	72.00	16.45	

* p<.05, ** p<.01, *** p<.001, a, b, c : Scheffé-test 결과임. 서로 다른 문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에서 차이가 있었다(F=3.752). 사후검증 결과 얼굴내부를 모두 생략한 집단(M=61.67)과 이목구비를 다 그린 집단(M=74.22)간에 차이를 보여 생략 없이 얼굴을 다 그린 여고생이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 생략 수에 따라 모 의사소통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081). 사후검증 결과 신체부위 생략이 없는 집단(M=74.56)과 3개 이상 생략한 집단(M=66.44)간에 차이를 보여 어머니상의 신체를 생략하지 않고 다 그린 여고생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균형에 따라 모 의사소통은 p<.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783), 사후검증 결과 중간집단(M=75.72)과 균형집단(M=69.69)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균형이 중간인 집단이 균형집단보다 모와의 의사소통

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얼굴표정에 따라 모 의사소통은 p<.05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F=4.368),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얼굴표정을 우호적으로 그린 집단이 타 집단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점수가 높아 원활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상징수에서는 부정 상징수가 p<.01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F=7.099). 사후검증 결과 부정 상징을 그리지 않은 집단(M=74.70)과 1개 그린 집단(M=64.61) 간에 차이를 보여 부정 상징을 그리지 않은 여고생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PSCD의 자기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부·모 의사소통의 차이

자기상의 반응특성에 따라 부모 의사소통의 차이를 알 아본 결과(표 6) 자기상의 반응특성 중 얼굴표정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얼굴표현, 신체생략 수, 신체크기, 신체균형, 얼굴표정, 인물간 거리는 모와의 의사소통과 차이가 있었다.

자기상의 얼굴표현에 따라 모 의사소통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116$), 사후검증 결과 얼굴내부가 생략된 집단($M=59.50$)과 타 집단($M=75.53, 73.04$)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자기상의 얼굴표현을 생략한 집단보다 얼굴내부를 그린 여고생들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상의 신체생략 수에 따라 모 의사소통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266$), 생략이 없거나($M=73.64$) 1-2개 생략한 집단($M=75.37$)과 3개 이상 생략한 집단($M=65.62$)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생략이 적은 경우 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상의 신체크기에 따라 모 의사소통은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며($F=4.67$), 크기가 용지의 1/2에서 2/3

<표 6> PSCD의 자기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

영역	구분	N	부 의사소통			모 의사소통		
			M	SD	F(t)	M	SD	F(t)
얼굴 표현	내부생략	8	54.00	11.88		59.50 ^a	18.36	
	눈, 코, 입 부분생략	60	67.82	16.62	2.839	75.53 ^b	11.84	5.116**
	이목구비 다그림	138	66.89	15.21		73.04 ^b	13.69	
신체부위 생략수	생략없음	110	66.92	15.38		73.64 ^a	13.13	
	1-2개 생략	73	68.49	16.09	2.461	75.37 ^a	13.25	5.266**
	3개이상 생략	26	60.69	13.96		65.62 ^b	14.10	
신체 크기	작다(1/2)	111	65.94	15.80		72.97	12.97	
	보통(2/3미만)	68	68.40	16.03	.605	76.28 ^a	13.99	4.67*
	크다(2/3이상)	30	65.63	13.80		67.40 ^b	13.07	
신체 균형	불균형	52	63.40	15.92		71.36	13.78	
	중간	118	68.13	15.71	1.675	75.23	12.80	3.104*
	균형	39	66.72	14.38		69.77	14.74	
얼굴 표정	어두운	7	61.14	15.25		64.29	11.23	
	무표정	42	60.55 ^a	12.91	6.089**	69.07 ^a	14.12	6.112**
	우호적	151	69.29 ^b	15.64		75.48 ^b	12.46	
전체 상징수	0개	50	64.28	15.48		72.96	14.41	
	1개	92	66.61	14.52	.813	73.00	12.67	.062
	2-3개	45	67.98	17.43		73.98	12.68	
	4개이상	22	69.91	16.33		73.45	17.41	
긍정 상징수	0개	152	66.51	14.38		73.44	12.71	
	1개	47	66.68	19.46	.184	73.38	15.58	.358
	2-3개	10	69.360	13.84		69.70	16.82	
부정 상징수	0개	194	66.84	15.58		73.44	13.59	
	1개	11	64.45	12.31	.128	72.09	7.99	.482
	2-3개	4	65.75	26.26		67.00	24.53	
인물상 위치	왼쪽	24	65.25	16.57		68.58	15.81	
	오른쪽	102	65.90	14.13	.563	73.07	12.66	2.01
	중앙	83	68.08	17.01		74.82	13.79	
인물간 거리	밀착	62	61.50 ^a	13.16		69.50 ^a	13.91	
	적당간격	115	68.57 ^b	16.78	5.205**	74.87 ^b	13.10	3.449*
	분리	32	70.00 ^b	13.20		74.68	13.49	
그린순서	첫 번째	18	60.67	16.39		69.72	15.25	
	두 번째	38	69.89	14.56	2.175	74.68	14.25	.821
	세 번째	153	66.61	15.61		73.31	13.20	

* $p<.05$, ** $p<.01$, *** $p<.001$,

a, b, c :Scheffé-test결과임. 서로 다른 문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정도의 크기로 그린 집단(M=76.28)이 2/3이상으로 크게 그린 집단(M=67.40)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의 신체균형은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F=3.104$) 집단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자기상의 얼굴표정에서는 부모의사소통 모두 $p<.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표정이 무표정한 집단과 우호적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 얼굴표정을 밝고 우호적으로 표현한 학생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간의 거리에 따라서는 부($F=5.205$, $p<.01$), 모($F=5.205$, $p<.01$)의사소통 모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물상 간에 밀착된 집단과 타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밀착되게 그린 집단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투사검사 중 하나인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의 반응특성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며, 나아가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이 부모-자녀 관계를 진단하는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여고생 209명이었으며,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PSCD)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으로 scheffé-test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의 부와 모의사소통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개방적이고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인경, 1993; 이지연, 2003; 조은경, 1993; 정유미, 1997)와 일치하였으나, 박선자(2006), 박의숙(2003)의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라 부모의사소통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둘째,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에서 아버지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얼굴표현, 신체 생략 수, 신체균형, 얼굴표정, 긍정 상징수, 부정 상징수에 따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상의 얼굴 내부를 생략하거나 신체 부위를 많이 생략하며, 얼굴표정이 어둡고, 신체가 불균형하며, 긍정 상징수가 없거나, 부정 상징이 많을 때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상의 반응특성에 따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얼굴표현, 신체 부위 생략 수, 신체균형, 얼굴표정, 부정 상징수에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상의 얼굴표현이나 신체를 생략 없이 다 그린 경우와 얼굴표정이 우호적이며 부정 상징을 그리지 않은 여고생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상 반응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보면, 얼굴표정, 인물간 거리에 따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얼굴표현, 신체 생략 수, 신체크기, 신체균형, 얼굴표정, 인물간 거리에 따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상의 얼굴표현과 신체생략이 적고 신체크기가 보통 크기이며, 인물간의 거리가 적당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얼굴표현, 신체 생략 수, 신체균형, 신체크기, 얼굴표정, 긍정 상징수, 부정 상징수, 인물간 거리 등이 부, 모 의사소통과 관련성이 있으며, 그린 순서, 인물상의 위치 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은 외부 현실세계와의 접촉을 상징하며 얼굴표정은 직접적인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고 본다. 얼굴표현이 생략되거나 표정이 어둡고 무표정한 경우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표정이 생략된 경우는 가족 내에서 느끼는 갈등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거리감을 두려는 시도로 해석(신민섭 외, 2002)할 때 얼굴표정을 생략한 것은 부모와의 접촉의 소원함에 대한 반영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결국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인물상의 표정을 밝게 그린 경우 부모친밀도가 높게 나타난 김지연(2006)의 연구와, 웃으며 행복해 하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표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정현희(1994)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한 학생들이 부모의사소통 수준이 높으며 원활한 것으로 나타난 이지연(200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부위의 생략이 많을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의 생략은 신체부위의 기능에 대한 거부와 그 부분에 대한 집착의 불안을 의미한다. 즉 인물상의 신체부위를 생략한다는 것은 그 인물상에 대한 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부위 생략이 없을 경우 부모친밀도가 높았다는 김지연(2006)의 연구와 일치하며,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옥현(2005)의 연구를 지지한다.

동그라미중심 부모-자녀그림은 상징중심탐색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징은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고, 의식의 여러 수준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에 근접하여 개인의 심층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다(정현희, 1997).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상의 긍정 상징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부모상의 부정 상징수가 적을수록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지연(2006)의 연구와 일치하며, 주위의 상징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일 때 부모자녀관계가 건강하게 내재화되었다는 점을 지지한다.

인물상의 크기는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은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상의 크기를 보통으로 그린 집단에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의 크기는 용지의 2/3정도의 크기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자신감이나 자신에 대한 느낌이 적절 수준임을 의미한다(신민섭 외, 200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기상이 보통 크기로 표현되었을 때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때 자녀의 자아개념이 높다는 김정선(1996)의 견해를 지지한다.

인물상의 균형에 있어서는 어머니상, 아버지상 모두 중간 집단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균형은 부모친밀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김지연(2006)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균형집단은 인물상을 7등신 이상으로 그린 경우를 말하는 데, 이러한 집단원들은 인물상을 정확한 비례에 맞추어 그림을 그리는 완벽한 성향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균형집단이 중간 집단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완벽하고 정확한 개인의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물의 위치는 자기상이 중심에 있을 때 부모자녀관계가 건강하게 내재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정현희, 김동연, 199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 어머니상, 아버지상 모두 인물상의 위치는 부모의사소통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김지연(200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정현희(1994)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상을 중심에 둔 아동이 자기상을 주변에 그린 아동보다 부모자녀관계를 건강하게 내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인물상 간의 거리는 인물상이 밀착된 경우보다는 적당한 간격이 떨어져 있을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관계가 건강하게 내재화 된 경우 인물상이 상호간에 지나치게 접촉되지 않고 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한 해석기준(정현희, 1997)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지연(2006)의 연구에서는 인

물상이 밀착될 경우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자기상의 반응특성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고생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기능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자기상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견해가 지지받고 수용될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지연, 2003)고 할 수 있다. 안경영(1991), 이인영(1993), 이진용(1990)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하여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경원(199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녀의 학습동기에 있어 남녀학생모두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상관이 훨씬 더 높으므로 나타나(이지연, 2003)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여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동그라미중심 부모-자녀 그림은 가족상담이나 청소년 상담 및 치료영역에서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는 좋은 도구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 치료자가 치료 장면에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모-자녀 관계를 진단하는 한편, 상징 탐색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를 명료화하여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치료기법으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그라미중심 부모-자녀 그림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시의 고등학교 여학생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상연령을 확대시켜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중학생들의 경우 그림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를 보인 점으로(김수현, 2006; 김지연, 2006) 미루어볼 때 고등학생의 경우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동그라미중심 부모-자녀그림, 부모의사소통

참 고 문 헌

- 강문희, 장연집, 정정옥(1999). 아동정신건강. 서울: 정민사.
- 김경원(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연, 정현희(2002).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에 의한 심리진단과 치료.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수현(2006). 성별에 따른 중학생 16PF 성격특성과 인물화(DAP) 성격 요인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 가족관계, 분리개별화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경, 윤진(1987).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 초록.
- 김주분(1994).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1996).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06). 중학생의 부모-자녀 친밀도와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그림(PSCD)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자(200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학계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수(1979). 아동의 부적응행동과 가족치료. 행동과학연구.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12-3, 통권 113호.
- 박의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또래관계 질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옥현(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디지털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 최규련(1997).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신민섭 외(2002).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 안경영(1991). 어머니의 언어상호작용 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경(1990).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금숙(1999).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인영(1993).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3).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와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용(1990). 어머니 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198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1992). 한국과 일본의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 비교. 동의논집(19). 291-305.
- 정현희(1994). 동그라미 중심 부모 자녀 그림법을 통한 부모 자녀 친밀도 측정의 타당화 연구. 미술치료연구, 1(1), 39-46.
- 정현희(1996a). 동그라미 중심 부모 자녀 그림에 의한 분노 표출 효과. 미술치료연구, 3(1), 1-17.
- 정현희(1997).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묘화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 미술치료연구, 4(1), 95-106.
- 정현희(1999).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묘화에 의한 유아-어머니 관계와 유아의 자아개념. 미술치료연구, 6(1), 73-87.
- 정현희, 김영자(1996b). 동그라미 중심 부모 자녀 그림을 통한 아동의 공격성완화 효과. 미술치료연구, 3(1), 19-38.
- 정현희, 오미경(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92, 85-95.
- 정현희, 장혜경(1995a).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묘화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 미술치료연구, 2(1), 65-77.
- 정현희, 장혜경(1995b). 동그라미 중심 부모자녀 묘화법에 의한 부모자녀 관계 측정 타당화 연구 I. 미술치료

- 연구, 2(1), 51-63.
- 정현희, 최경순(199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63-175.
- 조은경(1993). 부모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인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선남(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표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xline, V. M. (1976). *Play therapy*. Ballantine Books. Inc.
- Barnes, H. & Olsen, D. H. (1982).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Olson, D. et al,(Eds.). Family Inventories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Brown, F. G. (1976). *Principles of Education & psychological Testing*. Rinehart & Winston.
- Deacon, R. E. & Firebaugh, F. M. (1981).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Allyn and Bacon, Inc.
- Hurlock, E. (1972). *Child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 Kagan, J. (1971). *Personality Development*. Harcount Brace Jovanovich Inc.
- Nichols, M. p. & Schwartz, R. C. (1995). *Family therapy : Concepts and methods* (3rd). Boston : Allyn and Bacon, Inc.
- Olson, D. H., Sprenkle, D., Russel, C. S. (1983).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 :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Perry, D. C.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prentice-Hall. Inc.
- Satir, V.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 : Science and Behavior.

(2007. 7. 16 접수; 2007. 8. 6 채택)

<부록>

